

24. 너의 나라는 곤경에 처해있어.. 전사와 신부가 있어.

2015.03.15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곤경에 처해있어.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도 미국은 곤경에 처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 너희들의 땅에 대한 공격후에 행동을 취할 준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이미 약속이 되어있고 훈련생들은 부름을 받기위해 날개를 펴고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있을 일은 이 나라를 무릎꿇게 하는 매우 잘 조직된 일련의 사건들이 될 거야.

‘나쁜소식’을 듣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경계를 풀고 눈이 가려지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은 지도부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뉴욕시(9/11 트윈타워)의 재앙을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들을 괴짜와 음모를 파는 장사꾼이라고 생각해. 그들은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눈이 먼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안락함과 현상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백만년이 지나도 그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일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에서 그들의 관심은 완전히 멀어졌어.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대규모 혼란과 공포가 만연할 거야. 정말 많은 가족 구성원들의 실종으로 인해 그들 중 일부에게 치명적인 심장마비와 자살을 초래할 거야.

하지만 마침내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무 늦었어. 그들의 권리는 이미 박탈당하였어. 이제 해야할 일은 천국에 그들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야.. 그들의 구원, 그들의 회개 그리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나의 도움없이 그들 스스로 할 마음으로 무기를 드는 사람들은 실패할 거야. 나를 줄곧 알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이 나라에 옳은 일을 수호하도록 나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그들만이 오직 모든 역경에 맞서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자신의 길을 갈 생각이라면 너희들은 슬프게도 실수한 거야. 나의 권위 아래 와서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클레어) 주님, 만약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왜 그들은 휴거되어 지지 않는거예요?

(예수님) 정말 좋은 질문이야. 너는 나의 신부들에 대한 특징들을 알지?

(클레어) 제 생각에는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들은 전쟁을 좋아해?

(클레어) 아니요, 전혀요. 그들은 영화 '미션'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용병들에게 곧장 걸어가는 사제들과 같아요.

(예수님) 맞아. 그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 나의 신부들이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부들의 특징이야. 그들은 사랑하는 연인들이지 전사들이 아니야. 신부들이 오직 하는 전쟁은 그들 자신의 죄와의 싸움뿐이야.

(클레어) 하지만 이전 메시지에서 싸우기 위해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내 사랑아, 그건 그 영혼의 특징이야. 만약 그 전사가 연인이 되어진다면 그들도 휴거되어질 거야. 하지만 어떤 영혼들은 전사본능이 정말 매우 강하고 그들 역시 나의 왕국에서 해야할 역할과 자리가 있어. 결국 그들은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게 될 거야. 나의 천사들은 사랑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필연적으로 나의 명예와 나의 왕국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더이상 수호해야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을 멈출 거야. 하지만 그 때는 멀었어.

(클레어) 주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틀란티스 등등과 같이 마지막 주기의 파멸 후에 왜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내 사랑아, 너를 위해서.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가 아니야. 하지만 천국에 오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야. 괜찮지?

(클레어) 주님께서 괜찮은지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정말 달콤해요.

(예수님) 너는 또한 나의 작은 소녀야. 그리고 나는 너가 성장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너의 질문들을 좌절시키고 싶지 않아. 이제 그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자.

(클레어) 계획이요?

(예수님) 응, 음모와 이기심에 능숙한 사람들의 사악한 계획. 그들의 양심은 달혀서 타락과 탐욕에 완전히 삼켜졌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거야. 그들은 아직 닥치지 않은 그 불길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거야. 그들의 무지와 자만함으로 그들은 시나리오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 그들이 진실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들이 진행하는 계획이 역효과를 내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류에 대한 근시안적인 탐욕과 극악한 죄들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거야. 그 날은 슬픈 날이 될 거야.

내 사랑아, 나는 남겨질 사람들에게 스스로 행동하고, 무기를 들고, 스스로 공격하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닥칠 모든일 앞에서 함께 뭉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지금은 희망, 사랑, 안전함으로 뭉쳐야할 때이지만 배신자들이 있을 거야.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영혼들이 서로를 알게 될 거야. 육체는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지만 영은 진실을 증언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나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 그들의 악한 의제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함께 뭉치고,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어라. 기도가 없으면 너희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게 될 거야.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말아라. 나에게 기대면 나의 영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거센 바람이 아니라 고요한 작은 음성이 너희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인도할 거야. 기억해라: 만약 너희들의 육체를 잃게된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깐동안의 사건일뿐이야. 하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너희들의 영원이 결정이되.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녀나 부모님, 애완동물, 무고한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내가 창조한 고통의 불(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역한 천사들을 위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고문을 받게 될지, 아니면 영원히 약속과 기쁨의 땅에 정착하게 될지.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구에서 살았던 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지옥에 너희들의 영혼을 잃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